

Global Market Report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한-베트남 FTA 2주년,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 / 3

- 3 | 1. 진행경과 및 의의
- 5 | 2.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II. 한-베트남 FTA 2주년, 교역 및 투자 추이 / 7

- 7 | 1. 발효 전후 양국 간 교역 추이
- 21 | 2. 발효 전후 양국 간 투자 추이

III. 한-베트남 FTA 2주년, 활용 및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 / 24

- 24 | 1. 우리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5 | 2. 우리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26 | 3. 베트남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결과

IV. 한-베트남 FTA 활용우수사례 및 애로사례 / 28

- 28 | 1. 한-베트남 FTA 활용우수사례
- 31 | 2. 한-베트남 FTA 애로사례

V.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유망품목 / 35

- 35 | 1. 식품 (조미료, 음료수)
- 38 | 2. 가전 (믹서, 커피메이커)
- 41 | 3. 섬유·의류 (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 43 | 4. 자동차 (엔진, 자전거·오토바이 부품)
- 46 | 5. 건설자재 (타일, 싱크대)
- 50 | 6. 소비재 (헤어케어용품, 주방·식탁용품)

요 약

- **[논의배경]** 우리나라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한-ASEAN FTA 업그레이드 형태로 체결된 한-베트남 FTA가 발효 2주년을 맞이함
 - '12년 8월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한-중 FTA와 함께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17년 12월 현재 2주년을 맞이함
 - 한-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상품에 있어서 한-ASEAN FTA의 미개방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투자보호 규범을 통해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 베트남 투자 유치가 기대되었던 상생형 FTA 였음
- **[분석방법]**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FTA 활용도 증대를 위해 1) 한-베트남 간 교역·투자 추이 검토, 2) 우리수출기업 진출기업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3) 향후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하는 분석 방법을 선택
 - 발효 전후, 교역 및 무역수지, 수출입 부문에서 연평균 증가율 對세계와의 비교, 비중 및 순위의 변동을 검토하였으며, 양국 간 해외직접투자에서 신고건수, 금액, 순위 변동을 분석
 - 우리수출기업 37개사, 우리진출기업 11개사, 베트남 바이어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베트남 FTA 활용여부, 수출입액에 있어서의 변화, 활용애로사항 등을 설문조사함
 - 현지산업·시장 동향, 향후 관세인하 일정, 관세경쟁력을 기준으로 식품, 가전, 섬유·의류, 자동차, 건설자재, 소비재 분야에서의 수출유망품목 제시
- **[교역·투자 추이]** 우리나라 對세계 교역이 하락을 기록하는 중에도 베트남과는 교역, 무역수지, 수출입, 투자 모든 부문에서 발효 전후 금액, 비중, 순위 모두 증가
 -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베트남 교역액은 발효 이후 매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시현 ('15년 23.8%, '16년 20.1%, '17년 10월 43%)
 - 총 교역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1.1%p씩 상승 ('15년 3.9%, '16년 5%, '17년 10월 6.1%)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 ('15년 180억, '16년 201억, '17년 10월 260억)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입에 있어서도 발효 전후, 지속적으로 증가, 비중순위 모두 증가 (수출: '15년 278억, '16년 326억, '17년 10월 393억, 수입: '15년 98억, '16년 125억, '17년 10월 133억)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에 있어서도 발효 전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모두 증가하였으며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에 있어서는 '17년 6월 기준, 1위로 등극
- **[활용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업사례]** 한-ASEAN FTA 대비 높은 관세경쟁력, 유리한 조항 포함된 건 사실이나 활용률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할 부문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우리수출기업, 베트남 바이어의 50% 이상이 한-베트남 FTA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 실제 수출입액 변동에 있어서는 30~43%가 증가하였다고 응답

요 약

- 실제 기업들은 한-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경쟁력, 긴 사후적용기간, 높은 C/O 제출면제한도 등을 활용하여 혜택을 거둔 것으로 파악
- 반면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나 발급시스템의 불완전성, 원산지 확인제도 부재, 사후적용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및 간소화를 건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유망품목]

품목	세부품목	'17→'18 세율변화	유망사유 및 진출방안
식품	조미료, 음료수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확대 및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의 보편화, 브랜드 제품 선호 양상, 음식 조리에 조미료 사용 많으며 32% 성장시장 • 청량음료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비탄산수 음료시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해외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
가전	믹서, 커피메이커	10%→5% 14.2%→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성숙기에 진입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프리미엄 및 서구식 가전제품 수요 증가 추세로 한국산 믹서 수요가 높음 • 커피메이커는 소규모 상점, 가정용, 호텔용 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섬유/의류	모,펠트, 특수직물, 편물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의류산업은 베트남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나 관련 원부자재 제조 산업의 발전 미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베트남이 직물과 원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국가들로 중국, 대만, 한국 등임. 한국산 점유율 증가 필요
자동차	엔진, 자전거· 오토바이 부품	14.2%→10.7% 25.7%→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관련 감세정책, 신규 특소세 정책 시행으로 소형 세단 및 해치백 등 시장활성화 예상 • 자동차, 오토바이 사용량에 비하여 관련 부품소재 산업은 매우 미약하여 현지화율 7-10%에 불과
건설자재	타일, 싱크대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건설업은 매년 건실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장우호요인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 매우 큼 • 가처분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 및 1인 가구 점진적 증가로 알루미늄 식탁주방용품 시장 확대 전망 고품질 및 표준 제품 선호하는 편
소비재	헤어케어용품, 주방식탁용품	10%→0%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케어용품에 대하여 독성물질 스캔들로 인해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해외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편 • 외식산업 활성화로 사업장용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용 또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 지닌 수입산 선호 경향

I 한-베트남 FTA 2주년,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

1 진행경과 및 의의

- (배경) '09년 10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한-ASEAN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더하여 한-베트남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양자 협정 추진에 합의
 - 정상회담 시 FTA 협상 가능성 검토를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09.10), 이후 통상장관회담 시 협상운영세칙(TOR) 작성 ('10.3)
 - * '10년 6월부터 '11년 10월까지 6회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 양국 간 교역 및 GDP, 후생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는 공동보고서 채택을 시작으로 FTA 협상 추진 결정 ('11.11)
- (경과) '12년 8월,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 '17년 12월 현재 2주년을 맞이함
 - '12년 9월 1차 협상을 시작, '14년 12월 9차 협상으로 실질타결 선언 ('14.12)
 - '15년 5월 정식 서명 후, 한중 FTA와 함께 그 해 11월 국회 비준 통과 ('15.11)

< 한-베트남 FTA 주요협상결과 >

일자(장소)	주요협상내용
1차 '12.9.3~4(서울)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2차 '13.5.22~24(하노이)	우리 측의 Text(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13개 분야)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
3차 '13.10.16~18(부산)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
4차 '14.3.12~14(호치민)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5차 '14.5.20~23(서울)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
6차 '14.7.28~8.1(호치민)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개시
7차 '14.9.29~10.2(서울)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
8차 '14.11.17~21(다낭)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 동시 진행 원산지, 통관,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
9차 '14.12.8~10(서울)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타결

자료: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

- '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 발효 ('15.12)
 - *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모두 12월 20일 동시 발효
- '17년 12월 현재, 1차례 공동위원회 개최 ('16.12)
 - *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 정기회기는 매년, 특별 회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회합 (17.2조)

< 한-베트남 FTA 분야별 위원회 >

위원회명	개최주기	협정문
상품무역위원회	요청 시	2.14조
관세위원회	매년 최소 1회	4.12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매년 최소 1회	5.5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요청 시	6.10조
무역구제위원회	매년 최소 1회	7.11조
경제협력위원회	요청 시	13.4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요청 시	부속서 8-가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매년 최소 1회	부속서 8-다

자료: 한-베트남 FTA 협정문

- (의의)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측면에서 한-ASEAN FTA+a로 업그레이드 협정
 -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조건을 개선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국이자 인구 9,173만명, GDP 성장률 6.1%의 신흥시장으로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 ('16년말 기준)
 -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 ('14)224억불→('15)278억불→('16)326억불→('17)393억불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한-ASEAN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 * 한국측 양허 : 한-ASEAN FTA (91.7%)+추가자유화 (3%) = 한-베트남 FTA (94.7%) (수입액기준)
 - * 베트남측 양허 : 한-ASEAN FTA (86.3%)+추가자유화 (6.1%) = 한-베트남 FTA (92.4%)
 - 한-ASEAN 대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규범을 통해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상생형 FTA
 -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 ('14)22억불(4위)→('15)29억불(5위)→('16)30억불(4위)→('17.2분기)10억불(5위)
 - * 송금 보장, 수용 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이 해당

2 |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 (협정문 구성)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 베트남은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별도 챕터로 채택

< 한-베트남 FTA 협정문 구성 >

구분	챕터
상품 관련	① 상품, ② 원산지 규정(PSR 포함),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④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⑤ 기술장벽, ⑥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⑦ 서비스(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⑧ 투자
규범·협력	⑨ 전자상거래, ⑩ 경쟁, ⑪ 지재권, ⑫ 경제협력, ⑬ 투명성
총칙	⑭ 일반규정, ⑮ 분쟁해결, ⑯ 예외,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자료: 한-베트남 FTA 협정문

□ (상품) 한-ASEAN FTA상 민감·초민감품목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 추가 자유화 달성

- 협상대상품목은 한-ASEAN FTA 민감·초민감품목으로 한국 1,063개 품목(4.7억불), 베트남 1,226개 품목(21.2억불) 해당
- 추가자유화 결과(수입액 기준), 한국은 94.7%, 베트남은 92.4% 자유화를 달성
 - (한국) 품목수로는 499개를 추가개방 하였으며 마늘, 생강 등은 그 중 민감하지 않은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 쌀은 협상 제외
 - (베트남) 품목수 272개로 자동차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및 승용차(3천cc 이상), 화물차(5톤-20톤) 일부 등을 개방

< 한-베트남 FTA 자유화율 >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총 개방률
		추가개방	즉시	3~5년	7~10년	10년 이상	총	
한국	91.7%	수입액 기준	1.3%	0.9%	0.8%	0.004%	3%	94.7%
	11,169	품목수 기준	91	350	55	3	499	11,668
베트남	86.3%	수입액 기준	1.2%	2.0%	2.8%	0.1%	6.1%	92.4%
	8,245	품목수 기준	65	63	141	3	272	8,517

자료: 한-베트남 FTA 협정문

- (서비스·투자) 서비스는 **positive**, 투자는 **negative** 방식을 채택
 - (서비스) **negative** 방식의 재협상 약속, 상품과 마찬가지로 한-ASEAN FTA+a로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서비스 분야 양허 개선
 - (금융)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 간 **별도 협의 채널**(금융서비스 위원회) 확보
 - (통신) 통신 사업자의 對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GATS** 이상의 규범 확보
 - (자연인의 이동) 자연인의 일시입국·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당국 간 **별도 협의 채널** 마련
 - (투자) 한-ASEAN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BIT)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기설정의제 조항** 도입
 - 향후 유보협상 시점에서는 베트남측이 유보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규범) 한-ASEAN FTA 대비 **원산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지적권 등을 추가하여 폭넓은 무역·투자 자유화의 토대를 마련
 - (원산지)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수출자·생산자의 편의 도모
 - * 사전심사제도,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면제
 - (전자상거래) 베트남은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여, 전자 서명, 종이 없는 무역,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
 - (지재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

II 한-베트남 FTA 2주년, 교역 및 투자 추이

1 발효 전후, 양국 간 교역 추이

* 한-베트남 FTA는 '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발효 후는 '15년 12월 21일이나 실질적 원년은 '16년으로 전제하여 작성

□ 교역 추이

- (韓)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15~'16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베트남 교역액은 발효 이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시현
 - 한-베트남 FTA 발효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6년 양국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20.1%의 증가율을 기록
 - * 발효 전 '12~'15년의 연평균 증가율(20.1%)과 동일
 - '17년 1~10월 교역액 증가율은 이를 두 배 웃도는 43.0%를 기록
 - 우리나라 총 교역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 베트남의 점유율은 발효 직후부터 매년 1.1%p씩 상승
- (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의 총 교역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및 증감율 또한 증가세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교역 추이〉

구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2~'15)	2016	2017 (1~10월)	
우리나라 입장	對세계	금액	1,067,454	1,075,218	1,098,180	963,256	-3.4	901,619	867,886	
		증감률	-1.1	0.7	2.1	-12.3		-6.4	18.0	
	對베트남	금액	21,665	28,263	30,342	37,576	20.1	45,125	52,612	
		증감률	16.8	30.5	7.4	23.8		20.1	43.0	
		비중	2.0	2.6	2.8	3.9		-	5.0	6.1
		순위	13	8	8	4		-	4	4
	무역수지	10,227	13,913	14,362	17,966	20.7	20,135	25,946		
	순위	5	4	4	4	-	4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증감율이 베트남의 對세계 교역 증감율 대비 크게 상회
 - * 베트남의 對세계 교역증감율 : ('15년) 9.9% → ('16년) 7.3%
 - * 베트남의 對우리나라 교역증감율 : ('15년) 26.4% → ('16년) 19.2%
- 베트남의 총 교역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한 확장세
 - * 우리나라 교역액 비중 : ('15년) 11.2% → ('16년) 12.4% → ('17년 10월) 16.4%
- 교역 순위에서도 한 단계 상승한 2위(1위: 중국)를 기록

<발효 전후, 베트남의 對한국 교역 추이>

구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2~'15)	2016	2017 (1~10월)
베트남	對세계	금액	228,309	264,066	298,066	327,587	12.8	351,385	346,540
		증감률	12.1	15.7	12.9	9.9		7.3	21.8
입장	對우리나라	금액	21,116	27,323	28,907	36,552	20.1	43,569	50,455
		증감률	18.0	29.4	5.8	26.4		19.2	41.9
		비중	9.2	10.3	9.7	11.2	-	12.4	16.4
		순위	4	3	3	3	-	3	2
		무역수지	-9,954	-14,087	-14,619	-18,710	-	-20,757	-26,151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무역수지 추이

- (韓)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
 - '17년 1~10월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무역흑자국으로 미국을 제치고 한 단계 순위 상승
 - * 1위: 중국(343억불), 2위: 홍콩(299억불), 4위: 미국(147억불) 순('17년 1~10월)
- (베트남) '17년 1~10월 기준,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무역적자국

□ 수출 추이

- (韓)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상 강화 추세
 - 발효 1년차인 '16년엔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된 성장률을 보였으나 '17년 10월 기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감률인 48.6% 기록

- '15년 우리나라의 4위 수출시장으로 전년 대비 3단계 순위 상승한 베트남은 '17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3위 수출시장으로 부상
-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발효 이후 매년 1%p 이상 증가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추이 〉

구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2~'15)	2016	2017 (1~10월)
우리나라	對세계	금액	547,870	559,632	572,665	526,757	-1.3	495,426	475,120
		증감률	-1.3	2.1	2.3	-8.0		-5.9	17.3
입장	對베트남	금액	15,946	21,088	22,352	27,771	20.3	32,630	39,279
		증감률	18.4	32.2	6.0	24.2		17.5	48.6
	비중	2.9	3.8	3.9	5.3	-	6.6	8.3	
	순위	6	7	7	4	-	4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베트남의 수입시장 동향

- (성질별) 경기 활성화로 급증한 생산재 수입 수요가 전체 수입액 증가를 견인
 - 최근 3년간('14~'16년) 베트남 수입시장은 연평균 8.7% 속도로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 특히 '17년 1~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3%의 수입액 증감율 기록
 - '17년 1~10월 수입액 증감률의 증가 원인은 현지 제조업 및 수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입 생산재 수요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발효 전후,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 추이 〉

구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2~'15)	2016	2017 (1~10월)
베트남	對세계	금액	113,718	132,033	147,849	165,570	13.3	174,804	171,990
		증감률	6.6	16.0	12.0	12.0		5.6	22.3
입장	對우리나라	금액	15,535	20,705	21,763	27,631	21.2	32,163	38,303
		증감률	17.9	33.3	5.1	27.0		16.4	47.3
	비중	13.7	15.7	14.7	16.7	-	18.4	22.3	
	순위	2	2	2	2	-	2	2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17년 베트남 산업생산지표 호조세

- ◆ 1~9월 베트남 산업생산지수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 ◆ 1~9월 제조업 생산지수 전년 동기 대비 12.8% 상승(사상 최대)
- ◆ 10월 산업생산지수 17%(’15년 1월 이래 월별 상승률 중 최고치) [출처: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의 수입품목에서 생산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를 상회하고 있음

〈 베트남의 품목성질별 수입 동향 〉

구분 (단위:십억달러,%)		2014	2015	2016	2017 (1~9월)	품목성질별 수입 현황 (2017년 1~9월 기준)
내구 생산재 (1)	금액	55.6	67.5	71.8	66.7	
	증가율	10.1	19.9	5.6	26.8	
	비중	37.6	40.8	41.4	43.2	
중간 생산재 (2)	금액	79.4	83.7	86.1	74.5	
	증가율	14.3	6.8	3.5	20.8	
	비중	53.6	50.5	49.7	48.3	
생산재 (1)+(2)	금액	135.0	151.2	157.9	141.2	
	증가율	11.8	12.0	4.4	23.6	
	비중	91.2	91.3	91.1	91.5	
소비재	금액	13.1	14.4	15.4	13.2	
	증가율	9.3	10.4	6.8	17.9	
	비중	8.8	8.7	8.9	8.5	

주: 내구 생산재: 기계·설비·부품 포함, 중간 생산재: 원료, 반제품을 포함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기업군별) FDI(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수입 수요가 국내 기업보다 높으며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베트남의 기업군별 수입 동향 〉

구분 (단위: 백만달러,%)		2014	2015	2016	2017 (1~10월)	연평균 증가율 (’14~’16)
FDI 기업군	금액	84,211	97,226	102,436	103,102	10.3
	증감률	13.1	15.5	5.4	23.8	
	비중	57.0	58.7	58.6	59.9	
베트남 국내 기업군	금액	63,638	68,344	72,368	68,888	6.6
	증감률	10.5	7.4	5.9	20.1	
	비중	43.0	41.3	41.4	40.1	
총계	금액	147,849	165,570	174,804	171,990	8.7
	증감률	12.0	12.0	5.6	22.3	
	비중	100.0	100.0	100.0	100.0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국가별)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2위 수입국으로 비중 또한 꾸준히 확대 중
 - 발효 이후, 베트남의 對韓수입증감율이 對세계 수입증감율을 크게 상회
 - * 베트남의 對세계 수입증감율 : ('15년) 12.0% → ('16년) 5.6%
 - * 베트남의 對우리나라 수입증감율 : ('15년) 27.0% → ('16년) 16.4%
 - 전체 수입액 대비 우리나라의 수입비중 또한 발효 이후 매년 증가
 - * 우리나라 수입액 비중 : ('15년) 16.7% → ('16년) 18.4% → ('17년 10월) 22.3%
 - 특히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수입액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對韓수입액 비중은 확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베트남의 국가별 수입액 추이 〉

순위	국가	구분 (단위: 백만달러, %)	발효 전				연평균 증가율 ('12~'15)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0월)
1	중국	금액	28,785	36,938	43,711	49,499	19.8	50,019	46,832
		증감률	17.0	50.2	18.3	13.2		1.1	16.4
		비중	25.3	28.0	29.6	29.9		28.6	27.2
2	한국	금액	15,535	20,705	21,763	27,631	21.2	32,163	38,303
		증감률	17.9	57.1	5.1	27		16.4	47.3
		비중	13.7	15.7	14.7	16.7		18.4	22.3
3	일본	금액	11,602	11,615	12,926	14,360	7.4	15,064	13,268
		증감률	11.5	11.7	11.3	11.1		4.9	8.5
		비중	10.2	8.8	8.7	8.7		8.6	7.7
4	대만	금액	8,534	9,416	11,079	10,992	8.8	11,235	10,370
		증감률	-0.3	10.0	17.7	-0.8		2.2	12.2
		비중	7.5	7.1	7.5	6.6		6.4	6.0
5	태국	금액	5,792	6,318	7,093	8,279	12.6	8,849	8,478
		증감률	-9.3	-1.0	12.3	16.7		6.9	22.1
		비중	5.1	4.8	4.8	5.0		5.1	4.9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수입 추이

- (韓) 지난 5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발효 이후 수입증감율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액은 對세계 수입액이 감소를 거듭한 기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12년~현재까지)

- 발효 이후에는 증감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증감율 : ('15년) 22.7% → ('16년) 27.4%
- '17년 1~10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액은 133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 수입국으로서 베트남의 위상도 전년보다 한 단계 순위 상승해 7위를 기록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 추이 〉

구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2~'15)	2016	2017 (1~10월)
우리나라	對세계	금액	519,584	515,586	525,515	436,499	-5.6	406,193	392,766
		증감률	-0.9	-0.8	1.9	-16.9		-6.9	18.8
입장	對베트남	금액	5,719	7,175	7,990	9,805	19.7	12,495	13,333
		증감률	12.5	25.5	11.4	22.7		27.4	28.6
	비중	1.1	1.4	1.5	2.2	-	3.1	3.4	
	순위	16	11	11	8	-	8	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베트남 수출시장 동향

- (對세계) 최근 3년간('14~'16년)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은 연평균 8.4%의 속도로 성장
 - '15~'16년 베트남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지속하면서 수출 성장 둔화가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 발효 전후, 베트남의 對한국 수출 추이 〉

구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2~'15)	2016	2017 (1~10월)
베트남	對세계	금액	114,529	132,033	150,217	162,017	12.3	176,581	174,550
		증감률	18.2	15.3	13.8	7.9		9.0	21.3
입장	對우리나라	금액	5,581	6,618	7,144	8,921	16.9	11,406	12,152
		증감률	18.4	18.6	7.9	24.9		27.9	28.8
	비중	4.9	5.0	4.8	5.5	-	6.5	7.0	
	순위	4	4	4	4	-	4	4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 '15~'16년 수출 성장 부진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시장 수요 감소와 삼성의 Galaxy Note 7 단종에 따른 휴대폰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
- '17년 하반기 이후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Galaxy Note 8) 출시에 힘입어 완전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연초 정부가 설정한 수출 목표 달성도 면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
- * '17년 1~10월 교역액 기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올해 수출 성장 목표(전년 대비 6.9% 성장) 대비 92.5% 달성, 무역적자율도 정부 설정 마지노선(총 수출액 대비 수입액 초과율 1.7% 이내) 유지 중
- (對韓) 우리나라는 미, 중, 일본을 잇는 베트남의 4위 수출국이자 발효 이후 매년 20% 이상 수출증감율을 지속
- (기업군별) FDI 기업 주도하에 확연한 수출 증가율을 시현 중
 - '17년 1~10월 기준, 베트남 총 수출액에서 FDI 기업군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1%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비중도 확대 중

< 베트남의 기업군별 수출 동향 >

구분 (단위: 백만달러,%)		2014	2015	2016	2017 (1~10월)	연평균 증가율 ('14~'16)
FDI 기업군	금액	93,956	110,557	123,874	124,041	14.8
	증감률	-7.0	9.5	22.7	22.8	
	비중	62.5	68.2	70.2	71.1	
베트남 국내 기업군	금액	56,261	51,460	52,707	50,509	-3.2
	증감률	10.1	-8.5	2.4	17.7	
	비중	37.5	31.8	29.8	28.9	
총계	금액	150,217	162,017	176,581	174,550	8.4
	증감률	13.8	7.9	9.0	21.3	
	비중	100.0	100.0	100.0	100.0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주: '17년 10월까지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품목

- (성질별)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 품목의 성질 변화 양상은 발견되지 않음
- '17년 자본재 수입 비중이 다소 확대, 소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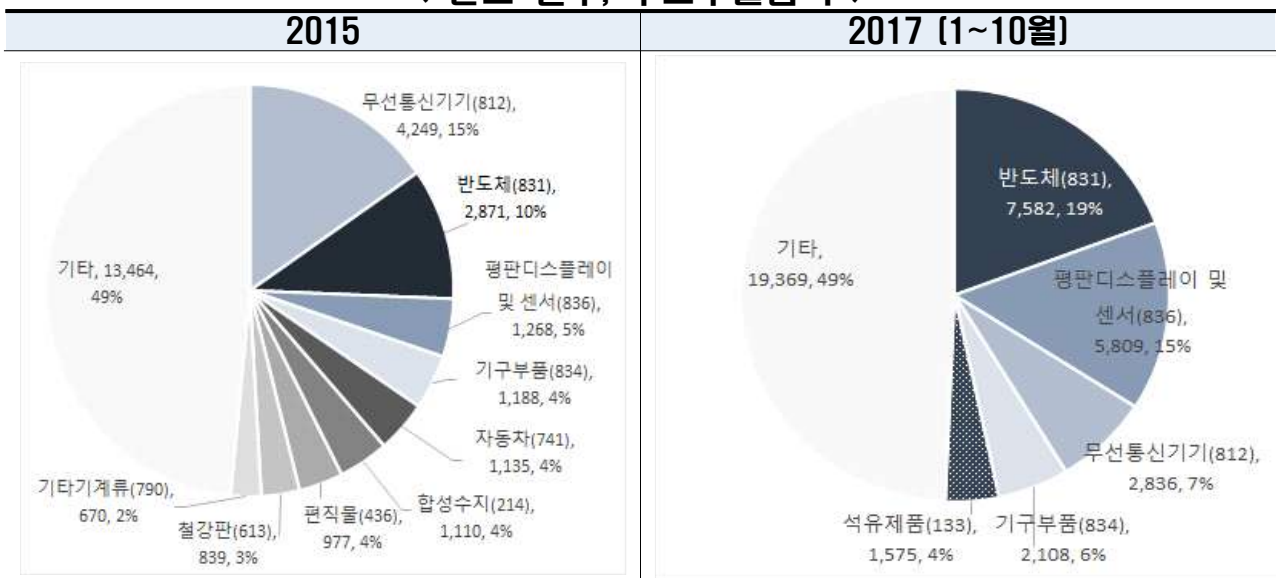
< 품목성질별 수출액 추이 >

구분 (단위: 백만달러, %)		발효 전			발효 후	
		2013	2014	2015	2016	2017(1-10월)
1차 상품	금액	159	113	79	116	94
	증감률	23.9	-29.2	-30.2	47.4	1.9
	비중	0.8	0.5	0.3	0.4	0.2
자본재	금액	3,450	3,657	4,788	4,145	7,897
	증감률	61.2	6.0	30.9	-13.4	154.5
	비중	16.4	16.4	17.2	12.7	20.1
중간재	금액	16,303	17,210	21,212	26,378	29,710
	증감률	28.6	5.6	23.3	24.4	37.2
	비중	77.3	77.0	76.4	80.8	75.6
소비재	금액	1,173	1,366	1,685	1,987	1,564
	증감률	17.7	16.5	23.3	18.0	-0.9
	비중	5.6	6.1	6.1	6.1	4.0
기타	금액	2	5	7	4	14
	증감률	46.6	116.5	37.7	-46.9	367.7
	비중	0.0	0.0	0.0	0.0	0.0
총계		21,087	22,351	27,771	32,630	39,27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10대 수출 품목)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 편중화 심화
 - 수출액 합산 시, 50%를 차지하는 품목 갯수가 '15년 9개에서 '17년 10월 기준, 5개로 감소하였으며 (MTI 3단위 기준)
 - 전자 및 기구의 부품류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발효 전후, 주요수출품목 >



주: MTI 3단위 기준, 수출액(단위: 백만달러), 총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순으로 표시
 자료: 한국무역협회

- 또한 발효 이후, 일부 품목(석유와 역청유 등)을 제외하고 10대 수출 품목에 큰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

순위	발효 전			발효 후 (단위:백만달러)					
	2015			2016			2017 (1~10월)		
	품목명 (코드)	수출액 (증감률)	비중	품목명 (코드)	수출액 (증감률)	비중	품목명 (코드)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전화기 (8517)	4,141 (77.4)	14.9	전화기 (8517)	4,248 (2.6)	13.0	전자 집적회로 (8542)	7,087 (107.3)	18.0
2	전자 집적회로 (8542)	2,591 (-0.4)	9.3	전자 집적회로 (8542)	4,074 (57.2)	12.5	일차전자· 축전지의 웨이스트 (8548)	3,647 (27,238)	9.3
3	전기식 음향·시각 신호용 기기 (8531)	1,097 (409.6)	4.0	전기식 음향·시각 신호용 기기 (8531)	1,983 (80.8)	6.1	액정 디바이스 (9013)	1,983 (553.4)	5.0
4	인쇄회로 (8534)	917 (30.7)	3.3	인쇄회로 (8343)	1,282 (39.7)	3.9	전화기 (8517)	1,844 (-48.4)	4.7
5	그 밖의 전기기기 (8543)	706 (4.6)	2.5	부분품 (8529)	1,195 (148.9)	3.7	인쇄회로 (8343)	1,686 (57.8)	4.3
6	기타 기계류 (8479)	683 (43.6)	2.5	석유와 역청유 (2710)	1,086 (263.7)	3.3	석유와 역청유 (2710)	1,565 (96.4)	4.0
7	그 밖의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6006)	490 (-5.9)	1.8	기타 기계류 (8479)	618 (-9.5)	1.9	전자부품 제조용 기기 (8486)	1,288 (1,043.8)	3.3
8	부분품 (8529)	480 (149.0)	1.7	그 밖의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6006)	541 (10.6)	1.7	기타 기계류 (8479)	1,274 (167.9)	3.2
9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	448 (-2.4)	1.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8541)	497 (79.1)	1.5	부분품 (8529)	1,253 (27.1)	3.2
10	화물 자동차 (8704)	429 (46.6)	1.5	전기회로의 기기 (8536)	471 (30.8)	1.4	기타 측정용·검사용 기기	748 (247.5)	1.9
	기타	15,789	56.9	기타	16,635	51	기타	16,904	43
	총계	27,771 (24.2)	100.0	총계	32,630 (17.5)	100.0	총계	39,279 (48.6)	100.0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관세인하품목) 10대 품목 가운데 관세인하 품목만 구분하여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발효 전후,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FTA 수혜가 적용되는 관세인하품목 가운데 특히 72류(철강), 85류(전기기기·TV·VTR), 87류(일반차량), 52·55·58류(직물·섬유) 관련 품목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전후, 10대 수출 품목 중 관세인하 품목 〉

양허 유형	품목명 (HS Code 6단위 단위: 백만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5		2016		2017 (1~10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Y-5	851762	음성·영상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24	-15.5	25	2.5	35	96.0
Y-5	852910	각종 안테나 및 그 부분품	29	-46.2	43	49.7	30	-7.7
Y-10	853620	자동 차단기 (전압 1,000V 이하)	23	20.9	25	8.4	22	-0.2
Y-5	853641	전압 60V 이하의 계전기	0	-3.0	1	1,196.2	0	-49.6
Y-10	853649	기타 계전기 (전압 1,000V 이하)	2	4.9	3	9.6	3	35.0
Y-5 Y-10	853650	그 밖의 개폐기	39	16.3	50	29.6	53	25.0

주: Y-5: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Y-10: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품목

- (성질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은 중간재로 나타남 (17년 1~10월 기준)
 -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구가하며 최대 비중을 유지해 오던 소비재 수입액이 올해 들어 감소하면서 순위 변동 발생
- (10대 수입 품목) 발효 이후, 상위 품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현지진출기업의 역수입 제품들이 증가세
 - 발효 전후, 수입액 상위 3개 품목은 변동 없으나 (MTI 3단위 기준)

〈 관세인하 품목 중 발효 전후, 수출액 증가율 상위 20개 품목 〉

순위	코드	품목명	양허 유형	2015	2016	2017 (1~10월)	연평균 증가율
1	480525	지와 판지-1제곱 미터 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Y-5	18 (0)	224 (1,174.2)	652 (230.7)	3,522.2
2	721550	철.비합금강의 기타 봉	Y-1	95 (-39.6)	650 (582.3)	1,675 (213.5)	1,663.2
3	7207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Y-1	4,521 (63.0)	683 (-84.9)	45,555 (6,570.3)	907.6
4	85272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Y-5	17 (409.3)	122 (631.9)	166 (37.7)	876.5
5	870894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 차량의 부속품	Y-10	201 (-19.5)	394 (95.6)	1,615 (420.9)	703.5
6	580190	기타 섬유제의 파일 및 셔니일 직물	Y-5	2 (-21.6)	21 (1,264)	15 (5,180.7)	650.0
7	551319	그 밖의 직물	Y-3	1 (-23.3)	19 (2,252.8)	7 (-64.2)	600.0
8	700711	안전유리-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Y-10	18 (-4.6)	156 (746.6)	112 (-8.0)	522.2
9	870840	기어박스	Y-15	4,377 (69.6)	25,703 (487.3)	27,063 (41.7)	518.3
10	72091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코일상의 것으로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Y-1	387 (-89.9)	387 (-0.1)	2,378 (538.9)	514.5
11	7211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Y-1	35 (-7.9)	143 (303.1)	195 (36.8)	457.1
12	870870	로우드 휘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Y-5 /Y-10	127 (-61.1)	450 (253.5)	683 (109.3)	437.8
13	853641	전압 60V 이하의 계전기	Y-5	63 (-3.0)	815 (1,196.2)	331 (-49.6)	425.4
14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Y-10	1,263 (148.9)	1,768 (40.0)	5,842 (391.2)	362.5
15	521041	면의 평직물(상이한 색사, 면 함유량 85% 미만, 1 M2당 중량 200G 이하)	Y-5	148 (-37.7)	523 (253.2)	670 (44.8)	352.7
16	390610	폴리메타크릴산메틸	Y-10	445 (-51.3)	544 (22.2)	1,790 (318.4)	302.2
17	870891	방열기(자동차용의 것)	Y-5 /Y-10	956 (56.5)	658 (-31.1)	3,845 (598.3)	302.2
18	700910	백미러(차량용의 것)	Y-10	52 (492.7)	398 (662.8)	206 (-36.3)	296.2
19	520812	면의 평직물(면 함유량 85% 이상, 1M2당 중량 100G초과 200G 이하, 미포백)	Y-10	18 (-39.3)	26 (46.3)	52 (172.9)	188.9
20	851989	음성 녹음 또는 재생기기-기타	Y-5	54 (320.8)	40 (-26.5)	141 (257.2)	161.1

주: 단위는 천달러,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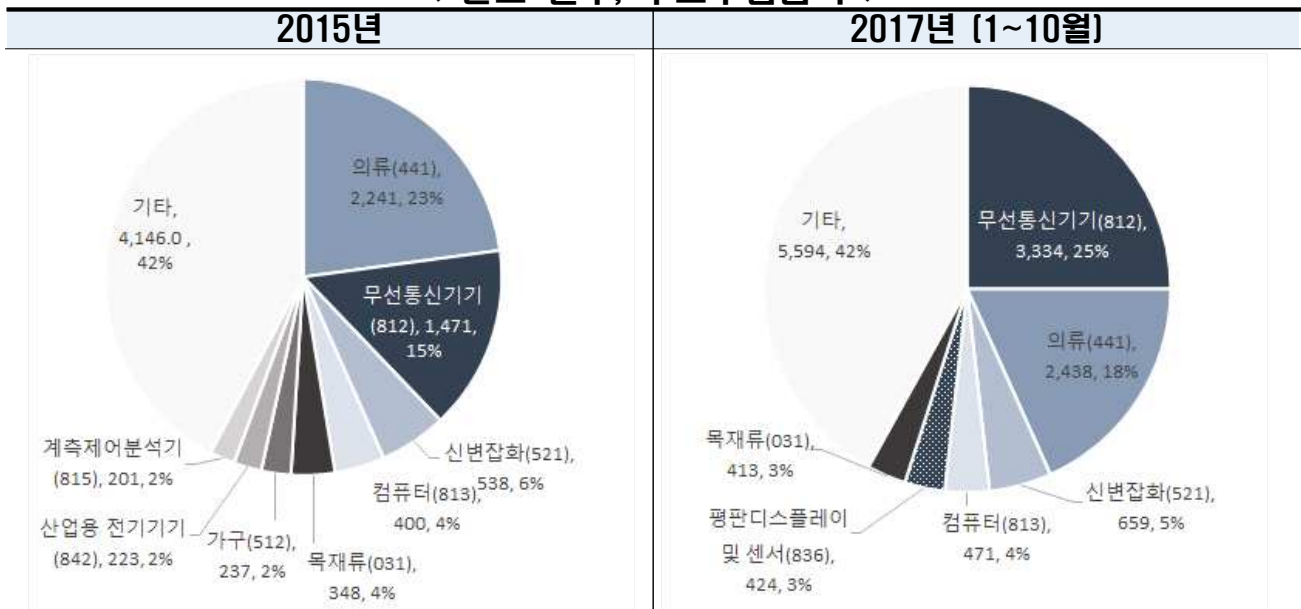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의 수입액 및 비중이 확대되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입액 상위 5위 품목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대표 전기전자 기업들의 베트남 생산기지 확대로 현지 가공 후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품목성질별 수입액 추이 〉

구분 (단위: 백만달러, %)		발효 전			발효 후	
		2013	2014	2015	2016	2017(1-10월)
1차 상품	금액	1,459	828	693	592	634
	증감률	4	-43	-16	-15	37
	비중	18.8	10.4	7.1	4.7	4.8
자본재	금액	486	731	881	1,297	1,986
	증감률	97	51	21	47	101
	비중	6.3	9.2	9.0	10.3	14.9
중간재	금액	2,078	2,331	3,706	5,111	5,863
	증감률	22	12	59	38	39
	비중	26.8	29.2	38.0	40.8	44.0
소비재	금액	3,152	4,098	4,524	5,494	4,495
	증감률	33	30	10	21	-4
	비중	40.7	51.3	46.3	43.8	33.7
기타	금액	1	1	1	1	355
	증감률	568	-2	-43	41	45,781
	비중	0.0	0.0	0.0	0.0	2.7
총계		7,743	7,986	9,761	12,535	13,33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발효 전후, 주요수입품목 〉



주: MTI 3단위 기준, 수입액(단위: 백만달러), 총 수입액 대비 수입 비중(%)순으로 표시
 자료: 한국무역협회

- 모니터·프로젝터·TV 수신기기, 인쇄회로, 전자직접회로 등의 품목 또한 상위 10위 품목으로 진입
- (관세인하품목) 10대 수입품목 가운데 양허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만 살펴볼 때 베트남산 의류 품목 수입액이 발효 후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

순 위	발효 전			발효 후 (단위:백만달러)					
	2015			2016			2017 (1~10월)		
	품목명	수입액	비중	품목명	수입액	비중	품목명	수입액	비중
1	휴대폰 포함 전화기 (8517)	1,233 (333.0)	12.5	휴대폰 포함 전화기 (8517)	2,524 (106.4)	20.2	휴대폰 포함 전화기 (8517)	3,161 (53.0)	23.7
2	남성·소년용 외투 (6201)	396 (-9.2)	4.0	방송용 송신기기 및 카메라 (8525)	854 (120.8)	4.7	남성·소년 용 외투 (6201)	361 (7.9)	2.7
3	여성·소녀용 외투 (6202)	305 (0.1)	3.1	남성·소년용 외투 (6201)	401 (1.2)	3.2	모니터· 프로젝터· TV수신기기 (8528)	336 (43.8)	2.5
4	자동차료처리기 기의 부분품 (8473)	282 (368.4)	2.9	자동차료처리 기기의 부품 (8473)	368 (30.7)	2.9	남성·소년용 하의 (6203)	331 (22.4)	2.5
5	방송용 송신기기 및 카메라 (8525)	264 (11,780.6)	2.7	여성·소녀용 외투 (6202)	320 (4.9)	2.6	송수신용 기의 부분품 (8529)	315 (294.6)	2.4
6	남성·소년용 하의 (6203)	264 (8.0)	2.7	남성·소년용 하의 (6203)	301 (13.8)	2.4	신발류 (6404)	298 (25.0)	2.2
7	펠트·부직포 직물류의 의류 (6210)	235 (-23.2)	2.4	모니터· 프로젝터· TV수신기기 (8528)	295 (220.8)	2.4	여성·소녀용 외투 (6202)	290 (13.4)	2.2
8	땀나무 (4401)	208 (-8.4)	2.1	신발류 (6404)	293 (50.1)	2.3	인쇄회로 (8534)	259 (74.9)	1.9
9	그 밖의 전기기기 (8543)	204 (-27.3)	2.1	땀나무 (4401)	221 (6.1)	1.8	전자직접 회로 (8542)	243 (456.1)	1.8
10	신발류 (6404)	195 (8.4)	2.0	감각류 (0306)	197 (18.1)	1.6	자료처리 기기 (8471)	216 (109.0)	1.6
	기타	3,659	64	기타	6,980	56	기타	7,507	56
	총계	9,805 (22.7)	100.0	총계	12,495 (27.4)	100.0	총계	13,333 (28.6)	100.0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발효 전후, 10대 수입 품목 중 관세인하 품목 >

양허 유형	품목명 (HS Code 6단위 단위: 천달러)		발효 전		발효 후			
			2015		2016		2017 (1~10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Y-1	620211	양모·섬수모제의 여자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 클룩 (직물제)	3,694	-16.6	19,991	441.1	16,390	-1.4
Y-1	620311	양모·섬수모제의 남자용 슈트 (직물제)	454	8,283.2	749	65.2	725	-0.8
Y-1	620331	양모·섬수모제의 남자용 자켓·블레이저 (직물제)	798	-39.1	8,384	950.2	10,290	28.4
Y-1	620332	면제의 남자용 자켓·블레이저 (직물제)	2,779	-4.7	4,899	76.3	4,150	-7.1
Y-1	620341	양모·섬수모제의 남자용 바지 (직물제)	920	72.2	4,556	395.2	5,766	28.4

주: Y-1: 즉시 철폐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발효 전후, 양국 간 투자 추이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

- (韓→베)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금액은 9억 2600만 달러로, 미국, 케이만 군도, 아일랜드, 중국의 뒤를 이어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로 나타남 (17년 6월 기준)
 -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 수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최대투자국
- (베트남 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유치국으로 2, 3위인 일본, 싱가포르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 중 ('88년~17년 1~6월,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기준)
 - * (1위) 한국: 545억달러, (2위) 일본: 462억달러, (3위) 싱가포르: 412억달러, (4위) 대만: 306억달러, (5위) 버진아일랜드: 213억달러
- (산업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분야를 중심
 - 최근 들어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광업 분야 투자가 감소하고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업종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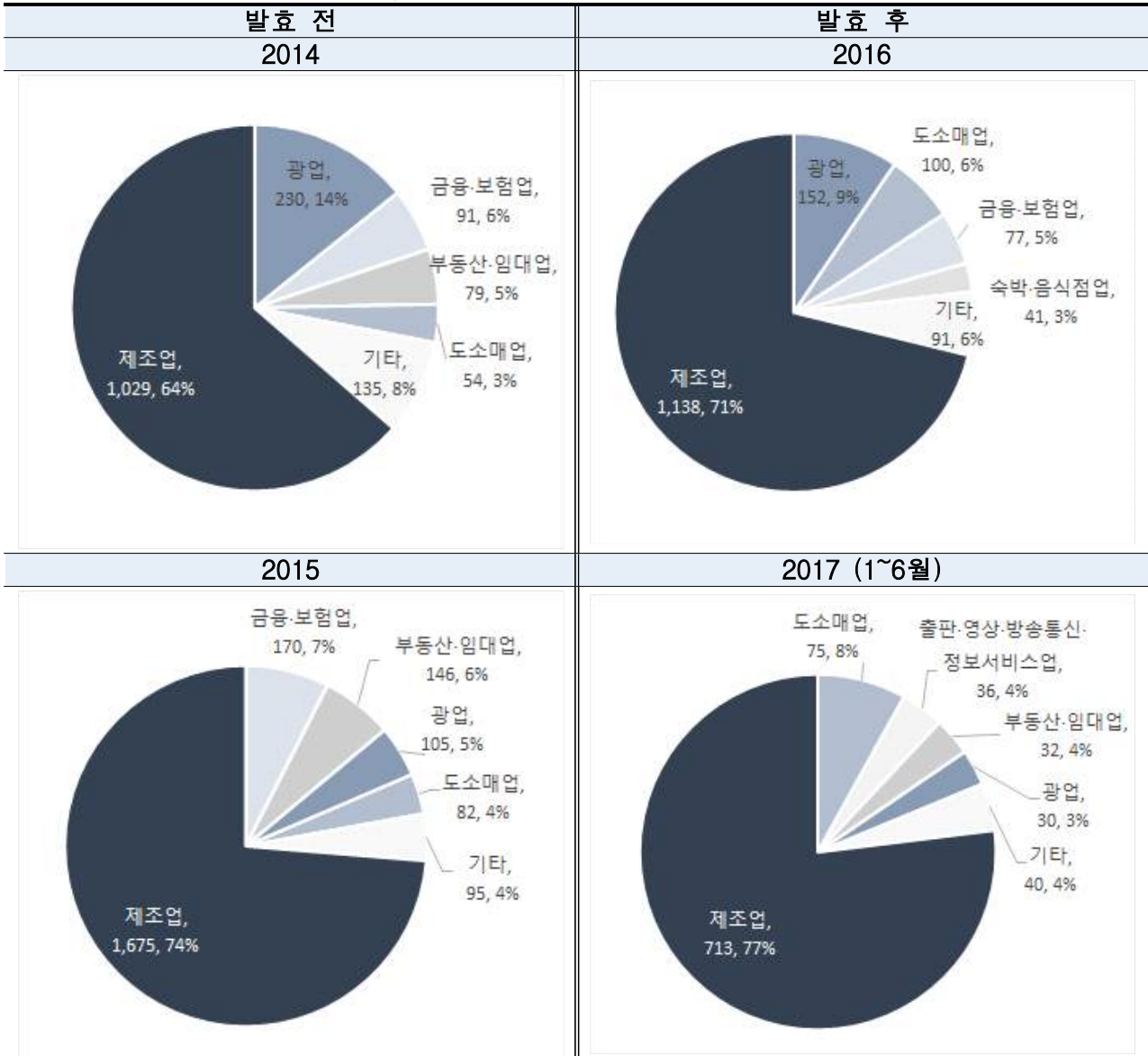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2013	2014	2015	2016	2017(1-6월)
신고건수	건수	1,109	1,366	1,702	2,137	1,100
	순위	3	3	2	1	1
신고금액	백만달러	1,476	2,150	2,920	2,993	1,020
	순위	7	4	5	4	5
투자금액	백만달러	1,153	1,617	1,599	2,273	926
	순위	7	4	5	4	5
신규법인	기업수	333	460	543	672	327
	순위	3	3	2	2	1

주: 한국 내 금융기관에서 신고·수리 및 송금 보고된 해외 투자 관련 수치를 토대로 산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산업별 對베트남 투자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백만달러

□ 발효 전후, 베트남의 對우리나라 투자 동향

- (베→韓) '17년 9월 기준, 베트남의 對韓 해외직접투자는 13건, 총 330만 8천달러로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점차 증가 추세
- (산업별) 330만 8천달러 가운데 313만 7천달러는 서비스, 17만 1천달러는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음

〈 베트남의 산업별 對韓투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1~9월)
식품	0	750(2)	0	1,186(3)	87(1)
섬유·직물·의류	0	0	0	0	84(1)
화학	300(1)	0	0	92(1)	0
기계·장비	95(1)	0	95(1)	0	0
전기·전자	0	0	0	90(1)	0
운송용 기계	590(1)	0	272(1)	0	0
기타제조	0	0	0	100(1)	0
제조업	985(3)	750(2)	367(2)	1,468(6)	171(2)
도·소매(유통)	187(2)	190(2)	281(3)	5449(5)	2499(8)
음식·숙박	0		370(2)	0	0
운수·창고(물류)	0	0	100(1)	0	238(2)
비즈니스서비스업	900(2)	0	0	0	0
공공·기타서비스	0	0	300(1)	0	400(1)
서비스업	1,087(4)	190(2)	1,051(7)	5,449(5)	3,137(11)
전체	2,072(7)	940(4)	1,418(9)	6,917	3,308(13)

주: () 안은 투자건수, 단위: 천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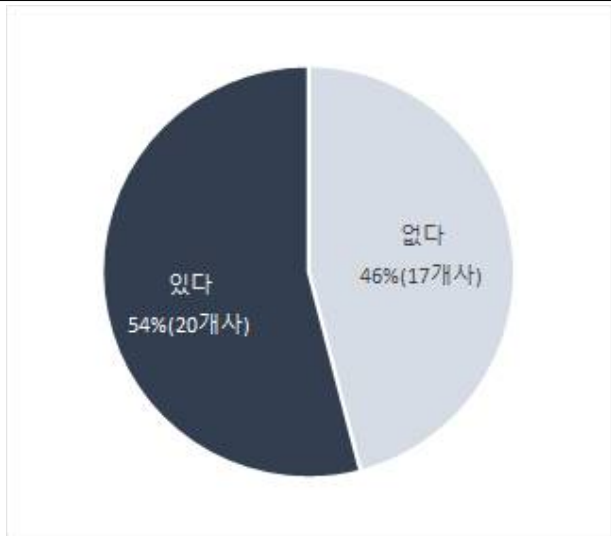
III 한-베트남 FTA 2주년, 활용 및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

하노이 무역관은 한-베트남 FTA가 양국 기업의 상호교역활동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과 기업들의 FTA 활용 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148개 우리나라 수출기업, 우리나라 진출기업, 베트남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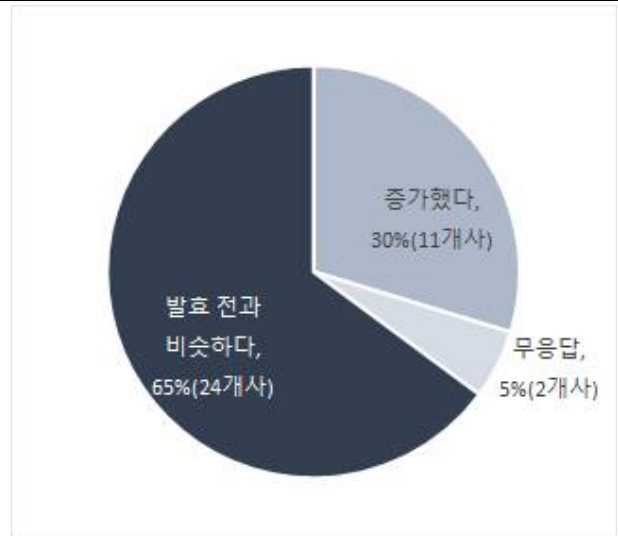
1 우리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설문응답기업: 베트남에 수출 중인 우리나라 기업 37개사

1. 한-베트남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2. 한-베트남 FTA 발효 후, 對베트남 수출액 또는 수출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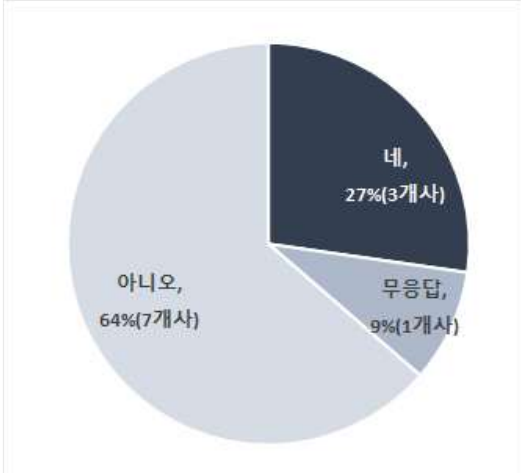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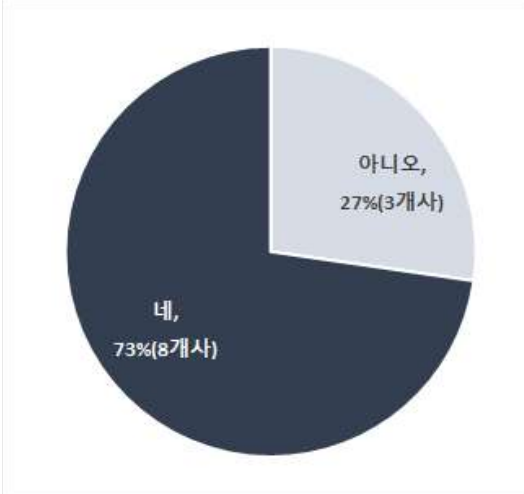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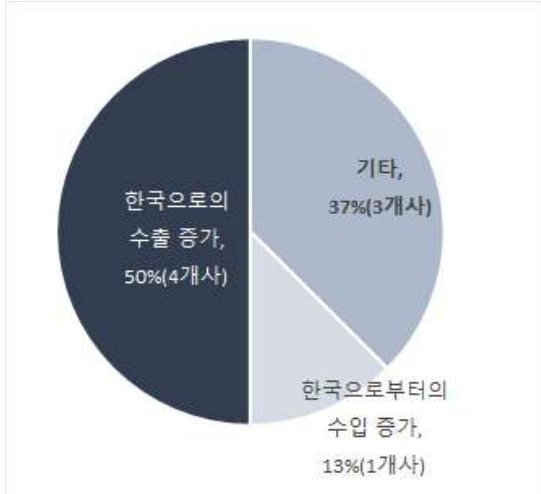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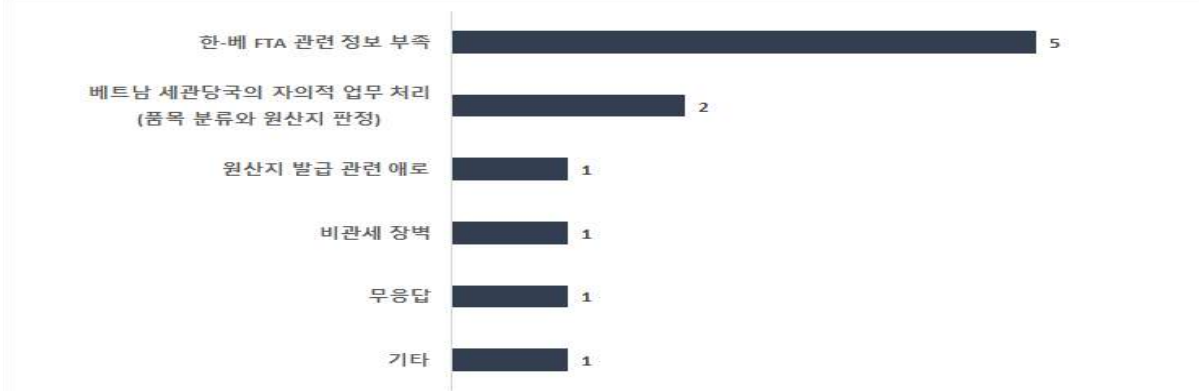


3. 한-베트남 FTA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2 | 우리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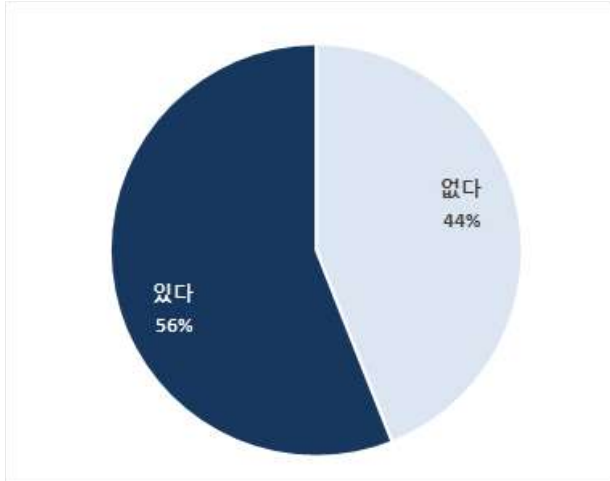
* 설문응답기업: '15년 1월 1일 이후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 11개사

* 설문조사 응답 기업 업종	1. FTA가 베트남 투자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table border="1"> <tr><td>섬유·의류</td><td>3개사</td></tr> <tr><td>전자·전기</td><td>2개사</td></tr> <tr><td>유통·물류</td><td>2개사</td></tr> <tr><td>생활소비재</td><td>1개사</td></tr> <tr><td>농림수산물</td><td>1개사</td></tr> <tr><td>기타</td><td>2개사</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 11개사</td></tr> </table>	섬유·의류	3개사	전자·전기	2개사	유통·물류	2개사	생활소비재	1개사	농림수산물	1개사	기타	2개사	총 11개사		 <p>네, 27%(3개사) 아니오, 64%(7개사) 무응답, 9%(1개사)</p>
섬유·의류	3개사														
전자·전기	2개사														
유통·물류	2개사														
생활소비재	1개사														
농림수산물	1개사														
기타	2개사														
총 11개사															
<p>2. 한-베트남 FTA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p>	<p>3. [2번 문항에서 '네'라고 답한 기업에 한해 한-베트남 FTA로 인한 對한국 수출입 변화는?</p>														
 <p>네, 73%(8개사) 아니오, 27%(3개사)</p>	 <p>한국으로의 수출 증가, 50%(4개사) 기타, 37%(3개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13%(1개사)</p>														
<p>4. 한-베트남 FTA 활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p>															
 <table border="1"> <tr><td>한-베 FTA 관련 정보 부족</td><td>5</td></tr> <tr><td>베트남 세관당국의 자의적 업무 처리 (품목 분류와 원산지 판정)</td><td>2</td></tr> <tr><td>원산지 발급 관련 애로</td><td>1</td></tr> <tr><td>비관세 장벽</td><td>1</td></tr> <tr><td>무응답</td><td>1</td></tr> <tr><td>기타</td><td>1</td></tr> </table>		한-베 FTA 관련 정보 부족	5	베트남 세관당국의 자의적 업무 처리 (품목 분류와 원산지 판정)	2	원산지 발급 관련 애로	1	비관세 장벽	1	무응답	1	기타	1		
한-베 FTA 관련 정보 부족	5														
베트남 세관당국의 자의적 업무 처리 (품목 분류와 원산지 판정)	2														
원산지 발급 관련 애로	1														
비관세 장벽	1														
무응답	1														
기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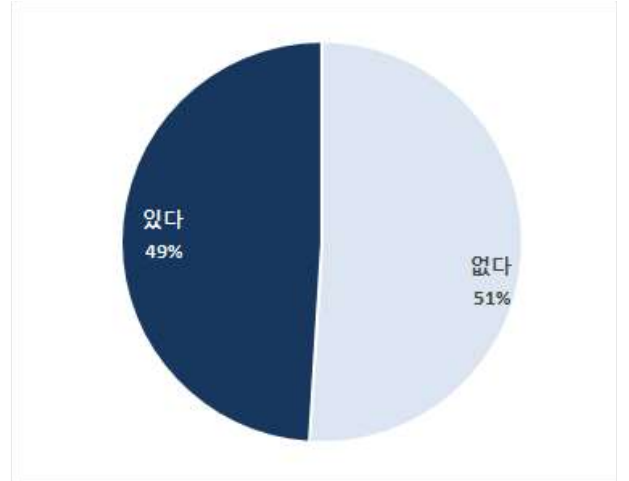
3 베트남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설문응답기업: 우리나라와 수입 거래 중인 현지 바이어 10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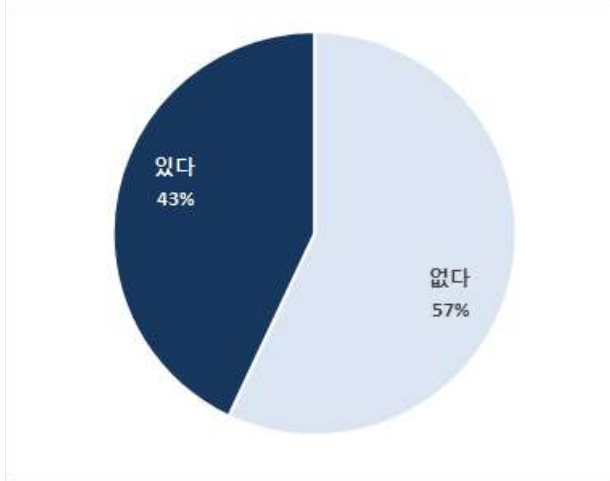
1. 한-베트남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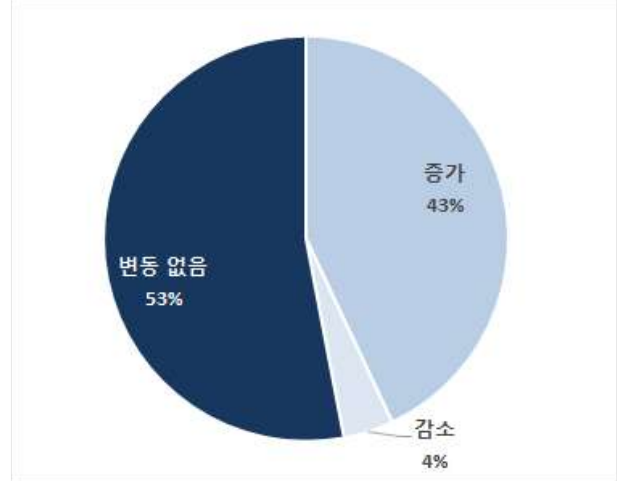
2. 한-베트남 FTA 발효 후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한국 제품을 신규 수입한 경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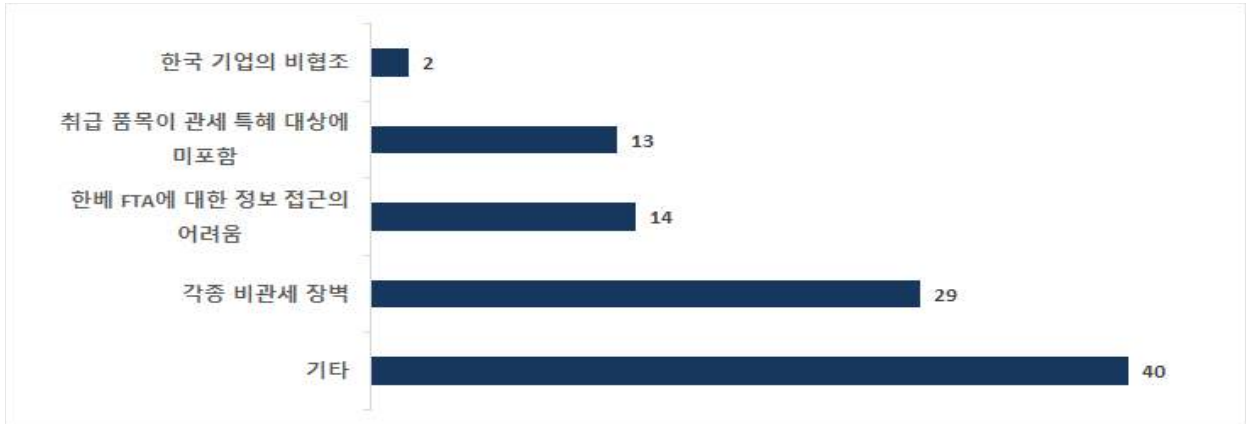
3.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한국 제품 수입량을 늘린 경험이 있는가?



4. 한-베트남 FTA 발효 후 한국 제품 수입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5. 한국 제품 수입 과정에서 한-베트남 FTA 활용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복수 응답 가능)



[참고] 활용 및 애로에 대한 인터뷰 (기관 및 국영기업)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 '17년 1~10월 교역액 기준, 베트남의 對韓적자규모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배 증가해 한국은 중국을 넘어 베트남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부상. 즉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 중
-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교역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베트남 기업의 한베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베트남이 체결한 타 FTA 활용률이 약 30~5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치
 - 현재 함께 이행되고 있는 한-ASEAN FTA의 활용률('17년 1~9월 기준, 베트남 기업들의 對韓 수출 시 한-ASEAN FTA 활용률은 40%)까지 포함하면 한-베 양국 간 FTA 활용률은 총 55% 수준으로 추산되나, '16년 한-ASEAN FTA 활용률이 59.6%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한다면 역시 활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베트남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 기관의 지원과 경험 공유가 필요

□ PETROLIMEX(Vietnam National Petroleum Group)

- 한-베트남 FTA 발효 후, 당 사의 對韓 석유 수입액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증가했음
- 당 사의 對韓 석유 수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수요 대비 제한적인 한국의 석유 공급량으로 인해 가격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임
- 한-베트남 FTA는 석유를 비롯해 베트남의 수입 수요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 타 FTA 대비 높은 관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국 정부는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국 경제의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생산 기술과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

□ HAPRO(Hanoi Trade Corporation)

- 당 사는 국영기업으로 20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 및 유통회사
 - 농수산물 배의 관세가 0%로 인하되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가능
 - * 한국의 對베트남 배 수출액 : 2,312,367('15년)→4,960,594('16년) 7,057,200('17년 10월 기준)
- 주요 수출품인 수공업품 및 농수산물(후추, 고추)에서는 VK FTA 효과가 제한적

IV 한-베트남 FTA 활용우수사례 및 애로사례

1 한-베트남 FTA 활용우수사례

회사명	화장품 수출업체 M사																																																																																																																																																																																				
품목	화장품 (HS Code : 3304) 기초 화장품류, 메이크업 제품류, 헤어제품, 목욕용품 등																																																																																																																																																																																				
관세혜택	기준세율(MFN) 20% → 한-베트남 FTA 14% (양허유형: 연도별 철폐)																																																																																																																																																																																				
업체현황 및 활용절차	<p>○ 화장품류의 베트남 세번 파악 및 적용 가능 관세율 종류 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9">CHAPTER 33</th> </tr> <tr> <th>HS code</th> <th>Product description in Vietnamese</th> <th>Unit</th> <th>Product description in English</th> <th>MFN</th> <th>AKFTA</th> <th>VKFTA</th> <th colspan="2">VAT</th> </tr> </thead> <tbody> <tr> <td>33030000</td> <td>Nước hoa và nước thơm.</td> <td>KG</td> <td>Perfumes and toilet waters.</td> <td>18</td> <td>20</td> <td>18</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4</td> <td>Mỹ phẩm hoặc các chế phẩm để trang điểm và các chế phẩm dưỡng da (trừ được phẩm), kể cả các chế phẩm chống nắng hoặc bắt nắng; các chế phẩm dùng để trang điểm móng tay hoặc móng chân.</td> <td></td> <td>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33041000</td> <td>- Chế phẩm trang điểm môi</td> <td>KG</td> <td>- Lip make-up preparations</td> <td>20</td> <td>20</td> <td>20</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42000</td> <td>- Chế phẩm trang điểm mắt</td> <td>KG</td> <td>- Eye make-up preparations</td> <td>22</td> <td>20</td> <td>20</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43000</td> <td>- Chế phẩm trang điểm móng tay và móng chân</td> <td>KG</td> <td>- Manicure and pedicure preparations</td> <td>22</td> <td>20</td> <td>16.4</td> <td colspan="2">10</td> </tr> <tr> <td></td> <td>- Loại khác:</td> <td></td> <td>- Other:</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33049100</td> <td>-- Phần, đã hoặc chưa nén</td> <td>KG</td> <td>--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td> <td>22</td> <td>20</td> <td>17.5</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499</td> <td>-- Loại khác:</td> <td></td> <td>-- Other:</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33049920</td> <td>--- Kem trị mụn trứng cá</td> <td>KG</td> <td>--- Anti-acne creams</td> <td>10</td> <td>20</td> <td>7</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49930</td> <td>--- Kem bôi mặt hoặc kem bôi da khác và nước bôi da (lotion)</td> <td>KG</td> <td>--- Other face or skin creams and lotions</td> <td>20</td> <td>20</td> <td>14</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49990</td> <td>--- Loại khác</td> <td>KG</td> <td>--- Other</td> <td>20</td> <td>20</td> <td>14</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5</td> <td>Chế phẩm dùng cho tóc.</td> <td></td> <td>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330510</td> <td>- Dầu gội đầu:</td> <td></td> <td>- Shampoos:</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33051010</td> <td>-- Có tính chất chống nấm</td> <td>KG</td> <td>-- Having anti-fungal properties</td> <td>15</td> <td>0.KH.MY</td> <td>0</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51090</td> <td>-- Loại khác</td> <td>KG</td> <td>-- Other</td> <td>15</td> <td>10.KH.MY</td> <td>10</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52000</td> <td>- Chế phẩm uốn tóc hoặc làm duỗi tóc</td> <td>KG</td> <td>- 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td> <td>15</td> <td>20</td> <td>18</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53000</td> <td>- Keo xịt tóc</td> <td>KG</td> <td>- Hair lacquers</td> <td>15</td> <td>0.KH.MY</td> <td>0</td> <td colspan="2">10</td> </tr> <tr> <td>33059000</td> <td>- Loại khác</td> <td>KG</td> <td>- Other</td> <td>20</td> <td>20</td> <td>14</td> <td colspan="2">10</td> </tr> </tbody> </table> <p>○ 동일한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ASEAN FTA 세율보다 한-베트남 FTA 세율이 유리함을 확인</p> <p>○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파악한 후, 제조사로 부터 원산지 소명서를 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진행</p>	CHAPTER 33									HS code	Product description in Vietnamese	Unit	Product description in English	MFN	AKFTA	VKFTA	VAT		33030000	Nước hoa và nước thơm.	KG	Perfumes and toilet waters.	18	20	18	10		3304	Mỹ phẩm hoặc các chế phẩm để trang điểm và các chế phẩm dưỡng da (trừ được phẩm), kể cả các chế phẩm chống nắng hoặc bắt nắng; các chế phẩm dùng để trang điểm móng tay hoặc móng chân.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1000	- Chế phẩm trang điểm môi	KG	- Lip make-up preparations	20	20	20	10		33042000	- Chế phẩm trang điểm mắt	KG	- Eye make-up preparations	22	20	20	10		33043000	- Chế phẩm trang điểm móng tay và móng chân	KG	- Manicure and pedicure preparations	22	20	16.4	10			- Loại khác:		- Other:						33049100	-- Phần, đã hoặc chưa nén	KG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22	20	17.5	10		330499	-- Loại khác:		-- Other:						33049920	--- Kem trị mụn trứng cá	KG	--- Anti-acne creams	10	20	7	10		33049930	--- Kem bôi mặt hoặc kem bôi da khác và nước bôi da (lotion)	KG	--- Other face or skin creams and lotions	20	20	14	10		33049990	--- Loại khác	KG	--- Other	20	20	14	10		3305	Chế phẩm dùng cho tóc.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330510	- Dầu gội đầu:		- Shampoos:						33051010	-- Có tính chất chống nấm	KG	-- Having anti-fungal properties	15	0.KH.MY	0	10		33051090	-- Loại khác	KG	-- Other	15	10.KH.MY	10	10		33052000	- Chế phẩm uốn tóc hoặc làm duỗi tóc	KG	- 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	15	20	18	10		33053000	- Keo xịt tóc	KG	- Hair lacquers	15	0.KH.MY	0	10		33059000	- Loại khác	KG	- Other	20	20	14	10	
CHAPTER 33																																																																																																																																																																																					
HS code	Product description in Vietnamese	Unit	Product description in English	MFN	AKFTA	VKFTA	VAT																																																																																																																																																																														
33030000	Nước hoa và nước thơm.	KG	Perfumes and toilet waters.	18	20	18	10																																																																																																																																																																														
3304	Mỹ phẩm hoặc các chế phẩm để trang điểm và các chế phẩm dưỡng da (trừ được phẩm), kể cả các chế phẩm chống nắng hoặc bắt nắng; các chế phẩm dùng để trang điểm móng tay hoặc móng chân.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1000	- Chế phẩm trang điểm môi	KG	- Lip make-up preparations	20	20	20	10																																																																																																																																																																														
33042000	- Chế phẩm trang điểm mắt	KG	- Eye make-up preparations	22	20	20	10																																																																																																																																																																														
33043000	- Chế phẩm trang điểm móng tay và móng chân	KG	- Manicure and pedicure preparations	22	20	16.4	10																																																																																																																																																																														
	- Loại khác:		- Other:																																																																																																																																																																																		
33049100	-- Phần, đã hoặc chưa nén	KG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22	20	17.5	10																																																																																																																																																																														
330499	-- Loại khác:		-- Other:																																																																																																																																																																																		
33049920	--- Kem trị mụn trứng cá	KG	--- Anti-acne creams	10	20	7	10																																																																																																																																																																														
33049930	--- Kem bôi mặt hoặc kem bôi da khác và nước bôi da (lotion)	KG	--- Other face or skin creams and lotions	20	20	14	10																																																																																																																																																																														
33049990	--- Loại khác	KG	--- Other	20	20	14	10																																																																																																																																																																														
3305	Chế phẩm dùng cho tóc.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330510	- Dầu gội đầu:		- Shampoos:																																																																																																																																																																																		
33051010	-- Có tính chất chống nấm	KG	-- Having anti-fungal properties	15	0.KH.MY	0	10																																																																																																																																																																														
33051090	-- Loại khác	KG	-- Other	15	10.KH.MY	10	10																																																																																																																																																																														
33052000	- Chế phẩm uốn tóc hoặc làm duỗi tóc	KG	- 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	15	20	18	10																																																																																																																																																																														
33053000	- Keo xịt tóc	KG	- Hair lacquers	15	0.KH.MY	0	10																																																																																																																																																																														
33059000	- Loại khác	KG	- Other	20	20	14	10																																																																																																																																																																														
활용효과	<p>○ 2017년 120,000 USD 성약 발생</p> <p>○ 2020년까지 화장품류 500,000 USD 상당 수출 예정</p>																																																																																																																																																																																				

회사명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업체 S사
품목	품목명 : 건미역 (HS Code : 1212.21)
관세혜택	기준세율(MFN) 10% → 한-베트남 FTA 5% (AK FTA 미양허 품목)
업체현황 및 활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KOTRA 하노이무역관 무역사절단 참가업체로서 베트남 방문 기간 동안 미팅을 주선 받은 베트남 바이어에게 건미역을 수출하려고 계획 ○ 건미역의 베트남 세번 과약 및 적용 가능 관세율 종류 확인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파악한 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진행 ○ 베트남 현지 사정상, 원산지증명서상 기재사항의 정확한 기재가 중요함을 인식 및 철저한 확인 ○ 한-ASEAN FTA 세율과 한-베트남 FTA 세율이 동일한 품목인 경우라도, 사후적용 기간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한도 등을 고려하여 한-베트남 FTA의 적용이 유리함을 인식 * FTA 사후 적용기간 : 한-ASEAN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에 한정되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까지 사후 적용 가능 *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한도 : 한-ASEAN FTA의 경우 USD 200 상당액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 USD 600 상당액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활용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300,000 USD 상당 계약 성약 및 추가 수출 계약 예정 ○ 건미역 외 추가적인 품목도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수출 계획 중

회사명	플라스틱 부품 수입 베트남 진출업체 A사
품목	품목명 : Plastic Slot (HS Code : 3923.90)
관세혜택	기준세율(MFN) 15% → 한-베트남 FTA 5%
업체현황 및 활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완충제를 베트남으로 수입하고자 함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MFN 15%, 한-ASEAN FTA 5%, 한-베트남 FTA 5% 중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파악 ○ 다만, 한-ASEAN FTA 세율과 한-베트남 FTA 세율이 동일한 경우, 베트남의 FTA 사후적용 기간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파악 ○ 한국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를 파악한 후, 한국 수출자에게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 요청 ○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취 후,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의 정확성 확인 후 베트남 세관 제출 <p>* FTA 사후 적용기간 : 한-ASEAN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에 한정되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까지 사후 적용 가능</p> <p>*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한도 : 한-ASEAN FTA의 경우 USD 200 상당액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 USD 600 상당액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p>
활용효과	○ USD 50,000 상당 수입액 관련 10% 관세율 상응하는 관세액 USD 5,000 절감

2 | 한-베트남 FTA 애로사례

애로사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불완전성 따른 C/O 발급 애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 발급이 가능한(발급신청부터 원산지 증명서 출력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가능)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ECOSY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및 관련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MOIT(베트남 산업 무역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확인 및 인장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사무소의 방문이 필수적이거나 베트남 면적 대비 그 수가 제한적인 실정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북부 남딘성에 사업장이 위치한 의류업체의 경우, 거의 매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딘성에 위치한 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아 2시간 거리의 하노이 MOIT 발급사무소에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만 가능하나, 해당 시스템 활용 범위를 전자 서류 제출 및 전자 발급까지 확대 필요

애로사항	원산지 확인제도 부재에 따른 수출물품 원산지입증 애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경우 원산지 확인제도가 부재함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 물품 중 베트남 내 수업체로부터 구매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입증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상당한 수의 협력업체에 의해 중간재 등을 공급받는 수출업체인 경우 현실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불가능함 ○ 현재 베트남에서는 내수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간재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모두 최종 수출물품 생산자(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은 자)가 관리 및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마진 등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원산지입증서류를 해당 공급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심지어 한-베트남 FTA Article 3.3에서도 중간재(roll-up)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원산지 확인제도 없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 4.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베트남 내수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입증 책임을 최종 수출자가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입증 완화를 위한 원산지확인제도 등 관련 제도 마련 건의

<p>애로사항</p>	<p>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에 따른 애로</p>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p>* No. 12802/BTC-TCHQ 2.2. Time for submitting C/O form K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With regard to physical customs declarations, the declarant must submit the original C/O at the time of registering the customs declaration. b) With regard to electronic customs declarations, the declarant must submit the original C/O at the time for submitting the customs dossier.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경우 필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달받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양 당사자의 부담이 가중됨 ○ 현재 양국의 발급기관 시스템을 통해 정상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한 것임 ○ 특히 내용 확인이 가능하나 인쇄가 조금만 흐리게 되더라도 원본의 진위성을 부인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 재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이 상당함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써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정부차원의 건의 필요(사후적용 관련 원본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양 정부 간 합의 필요 사안) ○ 양국 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검토

애로사항	FTA 사후적용 관련 절차에 따른 애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사후적용 여부를 신고서 상에 신고하여야 함 ○ 한-베트남 FTA 사후적용 관련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 이외에 구체적인 적용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베트남에서 자체적인 지침으로 절차를 규정함 * 한-베트남 FTA 3.16조 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생략) * No. 12802/BTC-TCHQ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Time for submitting C/O form KV: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If the original C/O is unavailable at the time of carrying out customs procedures, the declarant must specify the additional submission of C/O on the customs declaration and submit C/O within 01 year from the time of registering the customs declaration. While pending submission of C/O, customs declarant shall apply MFN tax rate.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이후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에 사후적용 여부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 취지에 맞도록 양국간 거래 촉진 및 FTA 활용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써 사후적용 절차 간소화 관련 정부 건의 필요

V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유망품목

* 현지 산업·시장 동향, 향후 관세인하 일정, 관세경쟁력 등의 기준으로 수출유망품목 선정

1

식품 (조미료, 음료수)

□ 현지 산업·시장 동향

- 경제 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베트남의 식품 소비는 매년 증가 중
 - BMI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16년) 베트남의 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의 속도로 증가했으며, '16년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약 206억 6,300만 달러로 추산
 - 품목별로는 쌀·빵·곡물류 시장 매출이 가장 큰 비중(40.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육류·가금육(23.4%), 생선·생선제품(10.8%), 신선·보존 과일(6.2%)이 잇고 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산층 확대와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의 보편화 및 소비 습관 변화, 브랜드 제품 선호 양상 등이 스낵, 편의식품 및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 증가를 견인 중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16년) 베트남 포장식품 시장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약 9%이며, '16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99억 4,000만 달러로 추산
- 전반적으로 현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우세
 - 닐슨 베트남에 따르면, 베트남 식품시장에서 현지 기업이 약 69%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ASEAN 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 점유율은 각 22%, 10%로 추정
 - 특히, 유제품(우유, 요거트, 치즈 등), 스낵류, 차·커피류, 냉동 고기·수산물, 라면 시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자국 기업 제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품목명	혼합조미료				HS Code	2103.90.4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30%
	10	0	0	0		ATIGA	0%
						ACFTA	0%
						AJCEP	17%
						VJEPA	8%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2103.90 기준 50,800 (21%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2103.90 기준 5,707(43%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음식 조리에는 조미료 사용이 많은 편 -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16~'20년 베트남 조미료 산업은 연간 25~32% 속도로 증가할 전망 - 베트남 조미료 시장에 선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Knorr(유니레버), Maggi(Nestle), Aji-Ngon(Ajinomoto), Miwon 등으로 이들 기업이 베트남 전체 조미료 시장의 약 3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6년 베트남의 HS Code 210390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08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태국(총수입액의 24%), 중국(18%), 말레이시아(14%) 등이 주요 수입국임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식품첨가제 및 보조제 관련 적합성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첨가제 등 관련 규정에 적합 2. 라벨상 사용방법 표기 3. 식품에 사용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보조제에 해당 4. 판매 전 적합성 등록 완료 - 적합성 검사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식품 관련 업종) 2. 생산시설 관련 식품안전 증명서 3. HACCP 또는 ISO 22000 기준 적합 증명서 등 4. 물품 테스트 결과서(12개월 이내, 지정된 기관의 기술표준 적합여부 포함되어야 함) 						

품목명	비탄산수 음료				HS Code		2202.90.3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30%
						ATIGA	0%
						ACFTA	0%
						AJCEP	15%
						VJEPA	17.5%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대비 증감)	HS Code 200290 기준 6,382 (10%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대비 증감)		HS Code 200290 기준 14,701 (103.9%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청량음료 시장은 '12~'16년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16년에는 Coca Cola Vietnam과 URC Vietnam의 식품 안전 관련 스캔들로 '14년(21%)와 '15년(10.2%) 대비 다소 둔화된 8%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함. 해당 스캔들로 인해 청량음료의 안정성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청량음료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즉석 차음료(RTD)로, '16년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단맛의 녹차 음료로, 동 품목 매출은 '16년 베트남 즉석 차음료 시장 총매출의 66%를 차지함 - 최근 들어서는 단맛의 녹차 음료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단맛의 우롱차 음료 소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청량음료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지 즉석 차음료 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 * Suntory Pepsico Vietnam, Coca Cola Vietnam, URC Vietnam이 각각 32.1%, 10.1%, 7.6%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 중 - 베트남 국내기업으로는 시장 점유율 14.1%의 Tan Hiep Phat 그룹이 가장 대표적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품질, 기술기준, 식품안전기준 관련 적합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적합성 검사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식품 관련 업종) 2. 생산시설 관련 식품안전 증명서 3. HACCP 또는 ISO 22000 기준 적합 증명서 등 4. 물품 테스트 결과서(12개월 이내, 지정된 기관의 기술표준 적합여부 포함되어야 함) 						

2 | 가전 (믹서, 커피메이커)

□ 현지 산업·시장 동향

- 9천 6백만의 거대 인구와 안정적 경제 성장, 평균 소득 증대 및 생활 수준의 점진적 향상과 라이프스타일의 서구화 등이 소비가전 시장의 수요 증대를 견인
 - BMI 통계 기준, 최근 3년간('13~'16년) 베트남 소비가전 시장은 연평균 9.7%의 속도로 성장
 - '16년 이 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약 6억 9529만 달러로 추산되며, '21년에는 약 12억 181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형주방가전) 시장 성숙기에 진입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프리미엄 및 서구식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
 - 유로모니터 통계 기준, '13~'16년 베트남 소형주방가전 시장의 연평균 매출성장 속도는 4.8%이며, '16년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 3,288만 달러의 매출고를 기록
 - 품목별로는 밥솥과 가스레인지·인덕션 판매량이 가장 많으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을 끓일 수 있는 효율적인 가전제품으로서 전기 주전자의 인기 및 구매 수요도 높음
 - 상대적으로 저가이며, 현지 유통망을 통해 쉽게 구매 가능한 중국 제품 수요가 높은 편이나, 대도시 거주 중·고소득층 소비자에 의해 프리미엄 가전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 중
 -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서구화로 제빵기, 커피머신, 전기 그릴 등의 가전 시장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HS Code	8509.40.0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25%
						ATIGA	0%
						ACFTA	10%
						AJCEP	15%
						VJEPA	17.5%
	10	5	0	0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 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509,40기준 47,500(35%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 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509,40기준 862(71.1%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베트남의 과즙 추출기 수입액은 4,7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음. 동 품목 주요 수입국은 중국(총 수입액 대비 비중 47%), 싱가포르(31%)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5위 수입국으로 총 86만 2,000달러의 수입액을 기록 -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 전문 소매유통매장 중 하나인 Tran Anh 사의 마케팅 디렉터에 따르면, 저속 스크류 프레스와 초고속 원심 분리기 유형의 과즙 추출기가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의 과즙 추출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음 * 저속 스크류 프레스 유형 제품의 판매 가격대는 273~455달러이며, 초고속 원심 분리기 유형 제품은 45~136달러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동 품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적합성 검사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식품 관련 업종) 2. 생산시설 관련 식품안전 증명서 3. HACCP 또는 ISO 22000 기준 적합 증명서 등 4. 물품 테스트 결과서(12개월 이내, 지정된 기관의 기술표준 적합여부 포함되어야 함) 						

품목명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HS Code	8516.71.0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25%
						ATIGA	0%
						ACFTA	0%
						AJCEP	15%
						VJEPA	17.5%
	14.2	10.7	7.1	3.6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516.71기준 4,600(118%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516.71기준 13(27.8%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도시화 및 커피숍 체인 시장 활성화로 베트남의 커피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BMI 보고서에 따르면 '05~15년 베트남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0.43kg에서 1.38kg까지 증가했으며, '21년에는 2.6kg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외부 커피 전문점에서의 커피 소비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커피 메이커 시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됨 - Trade Map 통계에 따르면 '16년 베트남의 커피 및 차 끓이는 기기(HS Code 851671) 총 수입액은 4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중국이 동 품목 수입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커피 메이커 시장은 소규모 상점 또는 가정용의 저렴한 일반 제품에서 레스토랑 또는 호텔용의 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품질검사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검사 신청서 2. 계약서 및 패키리스트 사본(있는 경우) 3. 기준 증명서 사본(비교목적 원본 제시 필요) 또는 원본 4. 기타 연관 자료(BL,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물품 사진, 제품 라벨 디자인, 자유판매증명서) 						

3 섬유·의류 (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 현지 산업·시장 동향

- 베트남은 세계 7위의 섬유·의류 수출국
 - 섬유·의류는 베트남의 제 2위 수출 품목. '16년 기준 베트남의 섬유·의류 품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3억 달러를 기록함
 - * 베트남 국영통신(VNA)에 따르면 '17년 섬유·의류 수출량과 생산량 전년 대비 각 11%,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6년 말 누적 기준, 섬유·의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수는 763개사(투자총액 약 20억 달러)로 추산
 - '12~'16년 총 260여 개사(투자총액 약 10억 달러)가 현지에 생산 시스템을 구축
 - * 베트남 의류, 방직 업종의 시간당 임금은 US\$ 0.7달러 수준으로, 중국(2.7달러), 태국(2.3달러) 등 주변국 대비 낮아 임금비용 절감 효과가 높음
- 미국 TPP 탈퇴 영향으로 인한 베트남 섬유산업의 영향은 제한적
 - TPP 이외에도 EU, 한국, 일본 등 거대 시장과 FTA를 체결했으며, RCEP, FTAAP 협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
 - * 한-베 FTA : 베트남산 직물 의류 수입시 8%~13% 관세 철폐
 - ** EU-베트남 FTA : 베트남은 10년, EU는 7년에 걸쳐 상대국 재화 대한 수입관세를 점진적 철폐할 계획
- 베트남의 섬유·의류 원부자재 생산량은 현지 실수요의 1/3 수준에 불과해 원부자재 생산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
 - 베트남 정부는 섬유·의류 업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25년까지 22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 관련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품목명	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HS Code		51류/56류/58류/60류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하위 품목별로 상이	
	10	0	0	0		ATIGA		
						ACFTA		
						AJCEP		
						VJEPA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 달러 전년 대비 증감)	N/A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 달러 전년 대비 증감)		51류: 15,696(28,2% 증가) 56류: 96,794(13,1%) 58류: 82,812(-6,1) 60류: 1,077,318(10,3%)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의류업은 베트남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나 관련 원부자재 제조 산업의 발전 미비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 섬유·의류 제조 및 수출 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직물 중 86%가 해외 수입으로 충족되고 있음 - '16년 기준 베트남의 직물과 원사 수입액은 각 104억 달러,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 5.9% 증가했음 - 베트남이 직물과 원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국가들로,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공급국임 - '16년 베트남의 직물 수입액에서 중국산 직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이었으며 한국산 직물의 수입액은 18.7%의 비중을 나타냄 - '16년 베트남의 원사 수입액에서 중국, 대만, 한국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 18%, 10%로 나타남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1월까지의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품질검사가 필수적이었으나, 관련 규정이 폐기되어 현재는 별도의 품질검사가 요구되지 않음 							

4 자동차 (엔진, 자전거·오토바이 부품)

□ 현지 산업·시장 동향

- 인구 및 소득 증대에 기반한 자동차 수요 확대
 -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이하 VAMA) 통계기준, '16년 VAMA 회원사의 자동차 판매량(현지 조립·생산차 및 수입 완성차 포함)은 30만 4,427대로 전년대비 25% 증가
 - * VAMA 회원사의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13년 11만 519대(19%) → '14년 15만 7,810대(43%) → '15년 24만 4,914대(55%) → '16년 30만 4,427대(24%)
 - 아울러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관련 감세 정책 및 ASEAN 역내국 간 완성차 수입 관세 철폐('18년 1월 1일부터 시행)로 현지 자동차 판매가격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자가 차량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BMI는 '18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판매량을 전년 대비 19.1% 증가한 약 28만 4,000여 대로 전망하는 한편, 매년 20% 이상 증가해 '21년 판매량은 53만 2,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베트남 정부의 신규 특소세 정책 시행으로 소형 세단과 해치백 승용차 시장 활성화 예상
 - 9인승 이하 배기량 1500 cc 이하의 9인승 이하 차량과 배기량 1500~2000cc 차량에 대한 특소세율이 현행보다 각 5% 인하됨에 따라 관련 차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18년 1월 1일부 특소세율 인하 차종 및 변경 내용 (배기량 1500 cc 이하의 9인승 이하 차량 현행 40% → 35%, (배기량 1500~2000 cc 차량) 현행 45% → 40%)
 - 특히 베트남 현지에 구축된 자사 제조시설을 통해 배기량 1500 cc 이하 차량을 조립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아, 현대, Mazda, Toyota의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 '14년 베트남 정부는 국내 소비량과 수출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는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Decision 1168/QĐ-TTg)」을 발표하는 등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 '16년 베트남의 자동차 총 생산량 23만 6,161대 → '25년 46만 6,400대(목표) → 153만 1,400대(목표)

품목명	차량용 추진용 엔진 (디젤 엔진이나 세미 디젤엔진)				HS Code	8408.20.93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25%
						ATIGA	0%
						ACFTA	20%
						AJCEP	3%
						VJEPA	3%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408.20기준 82,655(68.7% 감소)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408.20기준 16,246(183.8%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대형 농기계 제조업체인 베트남 엔진 및 농기계 국영회사(VEAM)에 따르면, 두 개 자회사(베트남 남부에 소재한 Southern Vietnam Engine 및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y Ltd와 북부 소재 Tran Hung Dao Mechanical Company Ltd)에서는 보행조종식 트랙터(pedestrian controlled tractors)를 위한 디젤 엔진 제조가 가능 - '16년 베트남의 87류 소속 차량 추진용 엔진의 수입액은 8,260만 달러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한국 등임 - 당해 해당 품목 총수입액에서 중국, 태국,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47%, 28%, 20%로 나타남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시에는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나, 베트남 내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고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에너지라벨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라벨 신청서 2. 시험기관 테스트 결과지 3. 해외 시험기관 적격여부 확인 자료(해외 시험기관에서 테스트 수행 시) 4. 예상 에너지 라벨 모델 - 에너지라벨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자 또는 수입자 이름 또는 이름 약어 2. 장비 코드 3.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 4. 적용 기준 또는 규정 						

품목명	핸들바, 반사경, 체인 활동 부속품				HS Code	8714.99,91 8714.99.92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45%
						ATIGA 5%
						ACFTA 13%
	25.7	192	128	6.4		AJCEP 45%
						VJEPA 45%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714.99 기준 64,300(192.8%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714.99 기준 4 (86.2%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제조 관련 부품·소재 산업 발전은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율(국내 부품 조달율)은 7~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베트남 오토바이·자전거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전거 및 전동 자전거의 80%는 수입산으로, 베트남 국내 제조품은 매우 적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 중 -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전거·전동 자전거 브랜드는 Thong Nhat, Delta, Hitasa 등임 - '16년 베트남의 자전거 부분품 및 부속품(HS Code 871499) 수입액은 6,430만 달러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동 품목 전체 수입액의 각 39%, 3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음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국에서 발행한 Circular No. 39/2016/TT-BGTVT dated 06/12/2016상 위험품목으로 분류된 부품인 경우에는 적합성 검사를 받고 수입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은 위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 해당 없음 					

5 | 건설자재 (타일, 싱크대)

□ 현지 산업·시장 동향

- 베트남에서 건설업은 매년 견실한 성장세를 구가하며 베트남 전체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
 - 베트남 통계청은 2016년 건설업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과 경제성장 기여도를 각 10.1%, 0.6%p로 집계
 - 베트남 건설업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시 '21년경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경상가격 기준, 2016년 베트남 건설업의 생산 가치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조 893억 동(약 4,79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연초 계획의 104%에 달하는 규모
- 베트남 건설업은 다수의 성장 우호요인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도시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경제 성장 및 급속한 산업화에 기인한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수요 확대, 관광 산업 호황에 따른 숙박시설 건설 붐 등이 건설 시장 수요를 견인
 - 다수의 건설업 종사자 및 풍부한 건설 전문 인력 보유, 꾸준한 해외 투자 자본 유입 및 정부의 건설 및 건설 투자 관련 정책과 제도 정비 등도 현지 건설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 베트남 기계기업협회(VAMI)가 추산한 현지에서 활동 중인 건설 사업자는 약 15만 명으로 이 중 중간 내지 대형 사업자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
 - ** 현재 베트남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건설 엔지니어)은 인구 100만 명 당 약 9000명으로, 세계 평균(3000명/인구 백만)의 세 배 수준
 - *** 베트남에 유치되는 FDI(외국인직접투자)의 약 40~50%가 건설업 투자이며, 금액상으로는 연간 40억~50억에 달함

<p>품목명</p>	<p>도자제 포장용, 노용, 벽용 타일</p>				<p>HS Code</p>		<p>6907.90.10 6908.10.10. 6908.90.11 6908.90.91</p>
<p>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p>	'17	'18	'19	'20	<p>'17년 관세율</p>	<p>MFN</p>	<p>35% / 45% / 35%</p>
<p>10 0 0 0</p>				<p>ATIGA</p>		<p>5% / 5% / 5%</p>	
				<p>ACFTA</p>		<p>20% / 20% / 20%</p>	
				<p>AJCEP</p>		<p>19% / 19% / 19%</p>	
<p>'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p>	<p>HS Code 6907.90 기준 44,600(9.3% 증가)</p>				<p>'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p>		<p>HS Code 6907.90: 0 (100% 감소) HS Code 6908.10: 0 (100% 감소) HS Code 6908.90: 5 (68.8% 감소)</p>
<p>시장 동향</p>	<p>- Vietnam Bank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건축 마감재로서의 특성을 가진 포장 및 벽 타일의 수요는 '15~'16년 착공된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8년경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p> <p>- 특히 하노이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오피스는 물론 아파트, 빌라 건설 수요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상가 건물도 다수 건설 단계에 있어 동 품목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p> <p>- '16년 HS Code 690790의 수입액은 4,4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중국산 수입액이 동 품목 베트남 총수입액의 89%를 차지했음</p> <p>-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다양한 타일 품목 가운데에서도 화장암 사용 수요가 '16~'20년 연간 20%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p>						

수입요건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함
- 적합성 검사 제출서류
 - 등록된 적합성 평가기관을 통해 적합성 검사를 받은 경우
 1. 적합성 신고서(No: 28/2012/TT-BKHHCN상 Form 2. CBHC/HQ)
 2. 사업 운용 관련 증빙 원본(사업등록증, 투자등록증 등)
 3. 적용 기준 원본
 4. 등록된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증명서 원본
 - * 필요 시, 원본 또는 진정사본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자가 판정을 하는 경우
 1. 적합성 신고서(No. 28/2012/TT-BKHHCN상 Form 2. CBHC/HQ)
 2. 사업 운용 관련 증빙 원본(사업등록증, 투자등록증 등)
 3. 적용 기준 원본
 4. 품질 관리 및 품질 관리 감독 계획을 첨부한 제조 공정도 (No. 28/2012/TT-BKHHCN상 form 1. KHKSCCL)
 5. 적합성 평가 보고서(No. 28/2012/TT-BKHHCN상 form 5. BCDG)
 - * 필요 시, 원본 또는 진정사본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품목명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주방용품				HS Code	7615.10.9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22%
	10	0	0	0		ATIGA	0%
						ACFTA	0%
						AJCEP	11%
						VJEPA	13%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7615.10 기준 15,000(47%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7615.10 기준 4,991(16.9%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처분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와 1인 가구의 점진적 증가로 베트남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 동 품목 선택에 있어 현지 소비자들은 일본, 독일, 유럽 기술과 표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며, 특히 기존에 소장 또는 사용하고 있던 제품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함 - 현지 소비자들은 국내산 보다는 수입산을 선호함. '16년 베트남의 동 품목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5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각각 49%, 33%의 시장 점유율(수입액 기준)을 기록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함 - 적합성 검사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식품 관련 업종) 2. 생산시설 관련 식품안전 증명서 3. HACCP 또는 ISO 22000 기준 적합 증명서 등 4. 물품 테스트 결과서(12개월 이내, 지정된 기관의 기술표준 적합여부 포함되어야 함) 						

6 소비재 (헤어케어용품, 주방·식탁용품)

□ 현지 산업·시장 동향

- (미용위생용품) 현지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고품질·천연 제품 수요 상승
 - '16년 베트남의 미용위생용품 시장 규모는 약 12억 8,9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최근 3년간('13~'16년) 이 시장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소득 향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와 함께 일부 저가 제품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 스캔들 등의 영향을 받은 현지 소비자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편
 - *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또는 무허가 사업자나 SNS 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다수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천연 및 유기농 제품이 시장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시장 수요 상승에 대응해 천연 제품 개발 및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음
- (주방식탁용품)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가정용품 시장의 최근 3년간('13~'16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3%이며, '16년 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4억 194만 달러임
 -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정부·언론 차원의 위생 및 청결 유지에 대한 홍보 활동,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제품 홍보 활동 등이 이 시장 매출 확대를 견인 중
 - 특히 현지 소매유통산업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제품 보급 및 시장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품목명	샴푸(향균성 제품 제외)				HS Code	3305.10.9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15%
						ATIGA	0%
						ACFTA	0%
						AJCEP	8%
						VJEPA	6%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3305.10 기준 22,000(98%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3305.10 기준 1,775(22.6%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16년 베트남의 샴푸 시장 매출은 1억 5,4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 % 증가했으며, '20 년 매출은 1억 6,6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베트남 헤어케어 시장은 해외 브랜드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니레버와 P&G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 중('16년 기준 시장 점유율 각각 40.2%와 30.4%) - '16년 베트남의 샴푸 수입액은 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 - 베트남에 샴푸를 수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일본, 태국,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베트남의 샴푸 수입액에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0%, 13%, 9.8%임 -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샴푸 수출액은 베트남의 동 품목 총수입액에서 8%에 상당하는 180만 달러였음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하려고 하는 품목의 제품등록이 필요함 - 제품등록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등록 보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관련 책임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 사본(제조사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 4. 자유판매증명서 등 - 신청절차: 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https://vnsw.gov.vn/)를 통해 제품등록을 신청하고, 제품 등록증 수취 후 수입 시 세관에 제출 - 화장품은 Circular No. 06/2011/TT-BYT Appendix No. 3-MP에 규정된 ASEAN 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이어야 함 						

품목명	스푼, 포크, 국자 등 주방용품 또는 식탁용품 세트				HS Code	8215.20.00	
2020년까지 관세 철폐 일정	'17	'18	'19	'20	'17년 관세율	MFN	25%
	10	5	0	0		ATIGA	0%
						ACFTA	0%
						AJCEP	11%
						VJEPA	13%
'16년 베트남의 총수입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215.20기준 6,600(1516% 증가)				'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천달러, 전년 대비 증감)	HS Code 8215.20기준 10(22.4% 감소)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일반 가정용 주방용품 수요와 아울러 외식 산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장용 제품 수요 증가가 베트남 주방용품 시장 성장을 견인 하고 있음 - 현대식·서구식 인테리어의 주방 장식용 제품과 기존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또한 국내산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과 기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지닌 수입산을 더 선호하는 편 - '16년 베트남의 HS Code 8215.20 제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16% 증가한 약 660만 달러이며, 이 중 37%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임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검사를 하여야 함 - 적합성 검사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식품 관련 업종) 2. 생산시설 관련 식품안전 증명서 3. HACCP 또는 ISO 22000 기준 적합 증명서 등 4. 물품 테스트 결과서(12개월 이내, 지정된 기관의 기술표준 적합여부 포함되어야 함) 						



작성자

- ◆ 하노이무역관 임현진 과장
-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대리
- ◆ 하노이무역관 박은실 관세사
- ◆ FTA지원팀 김미옥 전문위원



Global Market Report 17-049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7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FTA지원팀
(02-3460-3388)

ISBN : 979-11-6097-462-1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Global Market Report